

서울지역 프리랜서의 규모와 특징¹⁾

신 태 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I. 서론

혼자 일하면서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받는 방식으로 일하는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 경제시대에는 자신의 유희자원(시간, 공간, 재능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승차공유서비스 우버(Uber), 집안일을 처리해주는 태스크래빗(Task Rabbit), 반려견 산책도우미 왜그(Wag)는 물론, 번역, 디자인, 작가,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재능을 보유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프리랜서 닷컴(Freelancer.com), 업워크(Upwork), 깃워커(GigWalk)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성장중이다(유재홍 외, 2019). 국내도 IT개발자를 중심으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이렌서, 위시켓, 크몽 등)이 등장하며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지위의 프리랜서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에 대한 학문적·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

1) 이 글은 ‘신태중·이주환·이종수(2019),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의 제1장 및 제2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업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연방법률에 노동자(employee)를 정의하면서 이와 함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프리랜서로 통칭한다. 영국도 법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판례로서 숙련된 전문직을 프리랜서로 보고 있다. 독일은 넓은 의미로 자유직종을 프리랜서로 보며, 프랑스는 넓게는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주가 아닌 독립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보고 있다(이승렬 외, 2013).

통상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영어단어 freelance의 어원에서도 확인되는데, 중세시대 어떤 영주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free) 창기병(lance)을 뜻하는 것으로, 중세시대 용병단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황준욱, 2009). 즉, 이들은 보수를 받고 이곳저곳의 영주와 계약을 맺고 계약한 영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인 셈이다.

이처럼 용병에 어원을 두는 프리랜서는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용역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일의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중심인 관계이며, 피용자를 두지 않아 고용주와도 차이가 있다. 또한 특정 고용주에 장기간 전속되지 않고 다양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 일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학문적·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존 통계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프리랜서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지역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국내외의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방식을 활용하여 서울지역의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을 확인한다.

II. 국내외 프리랜서 정의

1. 해외의 프리랜서 정의

프리랜서의 영어적 표현인 ‘freelance’ 또는 ‘independent contractor’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어서, 전문직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프리랜서는 중세 용병(medieval mercenary warrior)을 지칭하는 것으로, 용병에 어원을 두고 있어서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용역계약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황준옥, 2009). 주지하다시피 도급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노동시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일의 결과물에 따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업무과정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일하고 특정 사업주에 전속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영어식 표현의 의미만으로 시사점을 찾기는 어렵다.

주요 선진국에서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비임금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노동자(employee)와 유사하게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법령에 정해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Kitching and Smallbone(2008)에 의하면 관례적으로 영국에서 프리랜서는 복수의 고객(client)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계약’(contract for services)에서 일시적인 기간에 대해서 노동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용자도 피용자도 아닌 자영업자로서 숙련된 전문직(skilled professional)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승렬 외, 2013).

미국에서는 IT, 의료,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에서 한 조직에 얽매이기 보다 다양한 계약관계를 형성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초경계 경력개발자들(Boundaryless career workers)’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또한 프리랜서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성훈, 2007; 이승윤 외, 2019 재인용),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리랜서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

4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독립노동자를 포함하며, 그 중에서도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으로 혼자 활동하는 자유직업인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와 같은 법적으로 규정되거나 시험이나 학위 등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황준욱, 2013; 우미숙, 2018 재인용).

독일에서 프리랜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협의로는 IT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들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넓은 의미의 자유직종을 가리킨다고 한다. 자유직업인은 독일의 소득세법과 파트너쉽에서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업적 특성 또는 창조적 재능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자와 공익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이고 책임감 있는 독립 콘텐츠를 창출하는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승렬 외, 2013).

이처럼 중세 용병에 어원을 두고 생겨난 프리랜서 개념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유로운 직업인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내외 조례상 프리랜서 정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프리랜서'로 자치법규를 검색하면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시행 2019. 3. 28. 조례 제 7044호)와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2019.8.6. 조례 제6281호)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조례는 프리랜서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는 프리랜서 정의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라는 요소를 공통되게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 조례는 '일정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을 것', '자유계약으로 일할 것'을 개념 요소로 포함하는 반면, 경기도 조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일 것', '피

고용인이 없을 것',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표 1> 국내외 조례상 프리랜서 정의

구분	프리랜서 정의
서울시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기도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뉴욕	<p>The term “freelance worker” means any natural person or any organization composed of no more than one natural person, whether or not incorporated or employing a trade name, that is hired or retained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by a hiring party to provide services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This term does not includ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ny person who, pursuant to the contract at issue, is a sales representative as defined in section 191-a of the labor law; 2. Any person engaged in the practice of law pursuant to the contract at issue and who is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the bar of the highest court of any state, possession, territory, commonwealth or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who is not under any order of any court suspending, enjoining, restraining, disbaring or otherwise restricting such person in the practice of law; and 3. Any person who is a licensed medical professional.

한편 미국 뉴욕시(NYC)의 프리랜서보호조례(The Freelance Isn't Free Act)는 국내 조례보다 더 엄격하고 상세하게 프리랜서 노동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에 따르면, 프리랜서란 보상을 대가로 용역을 고용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격을 갖는 1인 회사의 직원을 의미하며, 다만 영업사원, 변호사, 의료인을 제외한다. 개념상 요건에 있어서 NYC 조례는 프리랜서 범위에 자연인 외에 1인 회사를 포

6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함하고, 영업사원·변호사·의료인 등 상대적 고소득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점에서 국내 조례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YC조례는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라는 점, 피고용인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independent contractor)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조례와 유사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프리랜서(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받으려면 노동자(employe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무제공자가 법적으로 '피고용인(employee)'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ABC 테스트는 2018년 4월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는데, 이 판결은 미국 전역에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 회사 다이내믹스(Dynamex)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해 오던 배달 기사들을 2004년 모두 독립계약자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이 2005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자신의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임을 주장하기 위해 아래 3가지 요소를 입증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3가지 요소란 첫째 노동자가 고용주체의 노동시간, 임금 또는 노동조건에 대한 통제력 행사에서 자유로울 것, 둘째 노동자가 고용주체의 통상적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했을 것, 셋째 노동자가 독립적으로 설립된 사업영역 또는 직업에 속해 있고 독립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을 것 등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는 근로자(employee)로 분류된다(곽용희, 2019).

[그림 1] 캘리포니아주 프리랜서 규정

- | |
|---|
| (A) The worker is free from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hiring entit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work, both under the contract for performance of the work and in fact; |
| (B) The worker performs work that is outside the course of the hiring entity's business; and |
| (C) The worker is customarily engaged in an independently established trade, occupation, or business. |

Ⅲ.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서울지역의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국내외 프리랜서 정의에서 살펴봤지만, 프리랜서는 고용관계의 노동자가 아니면서 자신에게 종속된 피고용인을 두지 않고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으로 혼자 활동하는 독립적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자가 아닐 것, 피고용인이 없을 것,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것 등이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역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취업자 중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면서, 직업코드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인 응답자를 추출하여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는 이승렬 외(2013) 연구와 Kitching and Smallbone(2008) 연구의 협의의 프리랜서 규모 추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숙련의 1인 자영업자 직종을 추출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전문직에만 한정하기 어렵고,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독립적 경영활동을 하면서 사용종속성이 부재한 경우 프리랜서에 가깝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모두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규모를 추정하고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비록 한계가 있지만 선행연구의 추정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이다.

1.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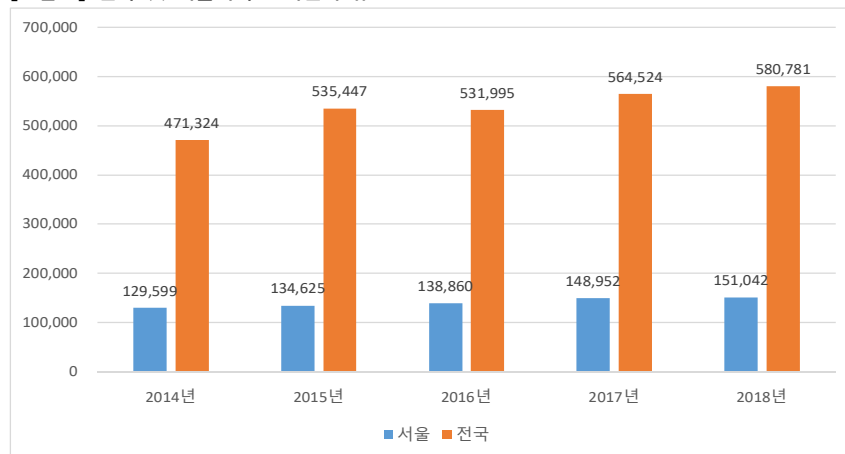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의 각 연도별 상반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면, 전국은 2018년 상반기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

8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업자'는 401만 5,251명이며, 이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코드2에 해당하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58만 781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 비임금노동자의 14.3%를 차지한다.

전국 기준 2014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프리랜서 규모 변화 추이를 확인하면, 2014년 상반기 기준 프리랜서는 47만 1,324명, 2015년 상반기 53만 5,447명, 2016년 상반기 53만 1,995명, 2017년 상반기 56만 4,524명, 2018년 상반기 58만 781명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18년 상반기는 10만 9,456명 증가하여 증가율은 23.5%로 나타나고, 연평균 증가율은 5.4%였다.

[그림-1] 전국 및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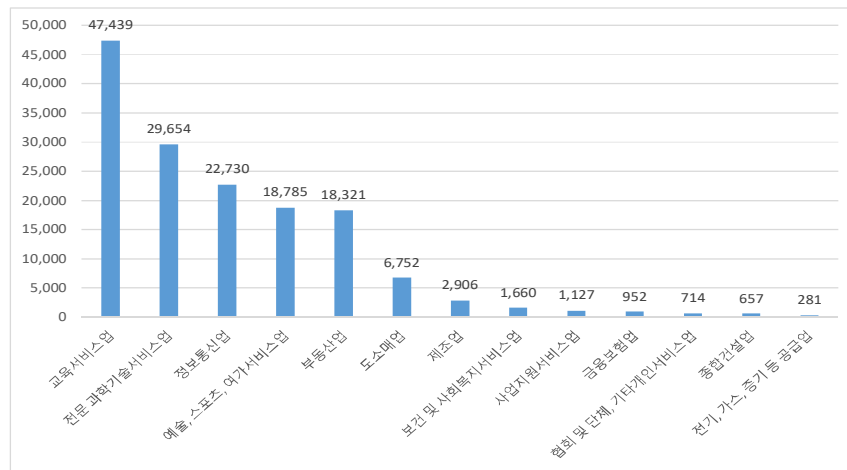
서울지역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상반기 12만 9,599명에서 2015년 상반기 13만 4,625명, 2016년 상반기 13만 8,860명, 2017년 상반기 14만 8,952명, 2018년 상반기 15만 1,042명이었다.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18년 상반기에는 2만 1,443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6.5%였으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9%였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는 취업자의

3.0%, 비임금노동자의 14.6%로 전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2. 서울지역 프리랜서 산업별 분포

종사상 지위가 임금노동자가 아니면서 혼자 일하는 전문직을 프리랜서로 정의하고 서울지역 프리랜서의 산업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교육서비스업에 4.7만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3만명, 정보통신업 2.3만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9만명, 부동산업 1.8만명이 일하고 있다.

[그림 2] 서울지역 프리랜서 산업별 분포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특히 프리랜서가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5개 산업은 종사자의 직업분류 코드에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이 높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은 교육서비스업 98%,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87%, 정보통신업 91%, 여가·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69%, 부동산업 69% 등이었다. 이에 반해, 다른 산업 예를 들어 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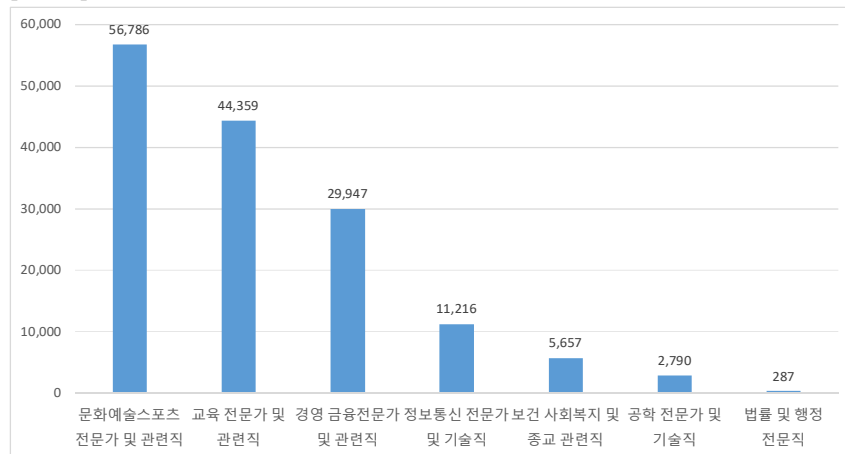
10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제조업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만 1,580명이지만, 이 중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업코드는 2,906명으로 13%에 불과했으며, 도소매업은 14만 2,356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전문직은 6,752명으로 5%에 불과했다. 즉,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의 다수 직업은 전문직이었다.

3. 서울지역 프리랜서 직업별 분포

서울지역 프리랜서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이 가장 많은 5.7만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4.4만명이었다. ‘경영 금융전문가 및 관련직’도 약 3만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과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증가율이 큰 것이 특징인데, 2013년 대비 2018년에는 각각 41.7%, 41.3% 증가하여 문화예술 분야와 IT분야의 프리랜서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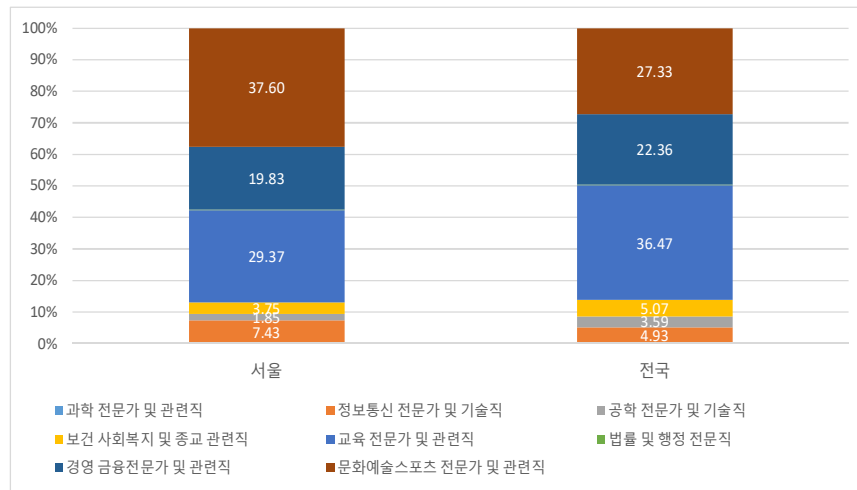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지역 프리랜서 직업별 분포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프리랜서의 직업별 구성비에서도 전국과 서울지역은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과 ‘정보통신 전문가 및 관련직’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문화·예술·스포츠 관련직은 전국보다 서울이 약 10%p 많으며, 정보통신 관련직도 2.5%p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전국과 서울지역 직업별 프리랜서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4. 서울지역 프리랜서 인구학적 특성

서울지역 프리랜서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50.7%, 여성이 49.3%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20대 이하 7.9%, 30대 32.7%, 40대 32.7%, 50대 18.2%, 60대 이상 8.4%였다(평균 연령 43.2세). 학력으로는 고졸이하 14.6%, 전문대졸 9.7%, 4년제 대졸 60.4%, 대학원 이상 15.3%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83.4%로 고학력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33.6%, 기혼 60.1%, 이혼 및 사별은 6.3%였으며, 응답자의 가구주와 관계는 가구주 60.0%, 배우자 24.2%, 미

12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혼자녀 12.3%, 기타 3.4%였다.

동일한 시기 서울지역 취업자의 연령 및 학력과 비교하여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프리랜서의 65.4%가 30~40대였는데 비해, 서울지역 취업자는 해당 연령대 비중이 47.6%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력에서도 서울지역 취업자는 고졸 이하 41.9%, 전문대졸 이상이 58.1%로, 프리랜서의 고졸 이하 14.6%, 전문대졸 이상 83.4%와 큰 차이를 보여, 프리랜서의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서울지역 프리랜서 인구학적 특성

구분		규모(명)	비율(%)
성별	남성	76,610	50.7
	여성	74,432	49.3
연령	20대	11,963	7.9
	30대	49,422	32.7
	40대	49,448	32.7
	50대	27,484	18.2
	60대 이상	12,724	8.4
학력	고졸이하	21,959	14.6
	전문대졸	14,680	9.7
	4년제대졸	91,267	60.4
	대학원	23,135	15.3
혼인상태	미혼	50,733	33.6
	기혼	90,811	60.1
	기타	9,497	6.3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	90,550	60.0
	배우자	36,610	24.2
	미혼자녀	18,612	12.3
	기타	5,270	3.4
전체		151,042	100.0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5. 서울지역 프리랜서 노동시간과 부업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평균 36.8시간이었다. 노동시간대별로 구분하면, 주당 평균노동시간 1~17시간 13.2%, 18~35시간 23.2%, 36~44시간 34.7%, 45~53시간 17.1%, 54시간 이상 11.8%였다. 동일한 시기(2018년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서울지역 취업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 42.6시간과 비교하면 프리랜서의 노동시간은 짧은 편이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36시간 미만 비율이 36.4%, 36시간 이상 비율이 63.6%인데 반해, 서울지역 취업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36시간 미만이 14.3%, 36시간 이상이 84.4%로 차이가 있었다. 주된 일자리 외에 부업을 하고 있다는 프리랜서 비율은 0.4%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서울지역 프리랜서 주당 평균노동시간

구분	규모(명)	비율(%)
1~17시간	19,995	50.7
18~35시간	35,105	49.3
36~44시간	52,422	7.9
45~53시간	25,762	32.7
54시간 이상	17,758	32.7
전체	151,042	100.0
평균	36.8시간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14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표 2> 2018년 서울지역 산업별·직업별 프리랜서 규모

구분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산업 (대분류)	산업 (중분류)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 금융전문 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직업 전체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350	3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319	-	-	-	-	-	3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299	-	-	-	-	-	29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968	-	-	-	-	968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319	-	31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	-	-	315	-	315
	기자 제품 제조업	-	-	-	-	-	-	336	-	336
	전체	-	-	618	968	-	-	970	350	2,906

구분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산업 (대분류)	산업 (중분류)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 금융전문 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직업 전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281	-	-	-	-	-	281
건설업	종합건설업	-	-	329	-	-	-	328	-	657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	-	-	328	-	328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	-	2,332	-	2,332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1,405	-	-	676	1,073	3,154
	전체	-	-	-	1,405	-	-	3,664	1,073	5,814
정보통신업	출판업	-	5,796	-	-	-	-	-	924	6,720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	7,951	7,951
	방송업	-	-	-	-	-	-	-	1,303	1,303
	우편 및 통신업	-	-	-	-	-	-	300	-	3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3,802	-	-	-	-	-	364	4,166

16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

구분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산업 (대분류)	산업 (중분류)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전문 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직업 전체
	정보서비스업	-	1,237	-	-	-	-	-	1,053	2,290
	전체	-	10,835	-	-	-	-	300	11,595	22,730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952	-	952
부동산업	부동산업	-	-	-	-	-	-	18,321	-	18,32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	-	-	342	-	-	-	312	654
	전문서비스업	-	-	-	-	-	287	5,416	1,655	7,35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1,561	-	-	-	-	306	1,86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	-	-	19,775	19,775
	전체	-	-	1,561	342	-	287	5,416	22,048	29,65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381	-	342	-	-	-	404	1,127

구분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산업 (대분류)	산업 (중분류)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 금융전문 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직업 전체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	-	561	43,104	-	-	3,774	47,4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	-	-	973	-	-	-	-	973
	사회복지서비스업	-	-	-	687	-	-	-	-	687
	전체	-	-	-	1,660	-	-	-	-	1,6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919	-	325	16,924	18,16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	-	617	617
	전체	-	-	-	-	919	-	325	17,541	18,7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	-	379	-	-	-	-	379
	기타 개인서비스업	-	-	-	-	335	-	-	-	335
	전체	-	-	-	379	335	-	-	-	714
산업 전체		-	11,216	2,789	5,657	44,358	287	29,948	56,785	151,040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IV. 요약 및 결론

프리랜서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승렬 외(2013) 연구와 Kitching and Smallbone(2008) 연구의 협의의 프리랜서 규모 추정을 활용하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면서 전문직을 프리랜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자영업자 중에서 전문직 외의 프리랜서가 제외되는 점,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사용종속성이 약하고 독립적 경영을 하는 프리랜서가 제외되는 점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서울지역에 한정된 규모 추정과 특성 파악을 위해 표본수가 안정적인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지역 프리랜서는 2018년 상반기 기준 15만 1,042명으로 취업자의 3.0%, 비임금노동자의 14.6%로 전국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12만 9,599명과 비교하여 2018년 상반기에 약 2만 1,443명이 증가하였다.

서울지역 프리랜서의 산업별 및 직업별 구성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에 4.7만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3만명, 정보통신업에 2.3만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1.9만명, 부동산업 1.8만명으로 5개 업종에 83%가 종사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이 가장 많은 5.7만명이었으며,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4.4만명, 경영 금융전문가 및 관련직도 약 3만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국과 비교하여 서울지역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과 정보통신 전문가 및 관련직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30~40대 연령대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지역 취업자의 30~40대 비율이 47.6%인데 반해, 프리랜서는 해당 연령대 비율이 65.4%로 차이가 있었다. 학력면에서도 고학력자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전문대졸 이상 비율이 83.4%로, 고숙련의 전문직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앞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혼자 활동하는 숙련된 전문직이 프리랜서로 인식되어 왔고,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지역 프리랜서의 전반적인 규모와 특징의 윤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정확한 프리랜서 규모 추정을 위해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범위와 규모, 그리고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프리랜서를 식별하기 위한 핵심 요소 확인과 유사한 종사자와 개념상 구별 시도 등을 통해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용희(2019. 9. 16.), 특고·플랫폼 노동자, 기업소속 근로자로 보호받는다…캘리포니아주의 실험, 「월간 노동법률」 2019년 10월호
- 김성훈(2007), 미국의 프리랜서 노동조합, 「국제노동브리프」 5(12), 43~50.
- 신태중·이주환·이종수(2019),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 우미숙(2018),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유형별 특성 분석」,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홍·유호석·이종주(20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이승렬·김삼수·황준욱·박명준·신현구(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윤·박경진·김규혜(2019)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비판사회정책」 64
- 황준욱(2009), 프리랜서 노동특성과 정책대응, 「노동리뷰」 2019. 6월호, pp.55-66.
- 황준욱(2013), 프랑스 프리랜서의 사회보장,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12월호, pp3~15.
- Kitching, J., & Smallbone, D.(2008). "Defining and estimating the size of the UK freelance workforce", A Report for the Professional Contractors Group, Kingston University.
- Pink, D. H.(2001), 「프리랜서시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석기용 역, 에코리브르